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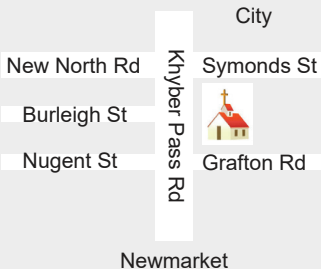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예배 후에 1월 정기 당회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4시5분).
- 오늘은 선교 파송 주일입니다. 십사일반 보내주신 정성 감사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출발하는 14명(이태한 목사외 13명)의 팀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간:2019년 1월 30일(수) -2월 7일(목). 사역지:포포아와 삼마 빌리지 사역내용:교육, 의료, 축호 전도
- 전교인 사진 촬영이 2월 10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후에 공동체별로 촬영합니다).
- 다음 주일은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준비 바랍니다.
-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주차 하실 때 주차 봉사자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2월 넷째 주부터 예고한 성경공부(풍성한 생명)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주일반, 평일 저녁반, 평일 낮반). 많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 3면은 갈보리교회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새벽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주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이성철  
부목사 : 이성훈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갈보리교회

2019 신앙생활 포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

●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상영형제

● 2월 기도 순서

2부예배  
3일 손조훈집사  
10일 정관영장로  
수요예배  
6일 김자경권사  
13일 김현주권사  
청년예배  
3일 김효철자매  
10일 황보준호형제

● 2월 예배안내

박제용/이기중

● 2월 교회사역

8일(금요일): 저녁기도회  
17일(주일): 제직회  
24일(주일): 권사기도회  
27일(수요일): 선교회  
주관 수요예배(4남선교회)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양	주일찬양단
예배로 부름	요한계시록 3:20 인도자
◎찬송	36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69장 다같이
대표기도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12:7-10 인도자
찬양대 찬양	주 예수 넓은 사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태한 목사
찬송	337장 다같이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445장 다같이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인도: 이성철목사

기도	김은희집사	찬송	320장
성경봉독	고린도후서3:6	중보기도	다같이
설교	새 언약의 일꾼/이성철목사	주기도	다같이

##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새해에 결심한 신앙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도록.
3. 바누아투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목사님, 성도님. 새해는 언제나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고 깊게 묻어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달 31일이면 1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합니다. 저도 그렇고 간을 이식 받은 이재근 선교사도 건강하고 잘 회복 되어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모두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갈 날이 임박해서인지 기대와 설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현장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 꾀땡스프 3번 국도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55km 밖에 안되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법 시간이 걸리는데 그 국도를 지나자면 가로수처럼 서 있는 야자수 나무의 정겨움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이번 소식에는 사역 소식보다 저희 식구들의 근황을 소개 하겠습니다. 두 딸들은 모두 나름대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 캄보디아를 번갈아 살아온 탓에 약간의 문화 충격과 실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도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헤어짐의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교육대학원을 다녀야 하기에 잠시 들어 갔다가 다시 나와서 두 딸과 같이 있게 될 것이고 저는 막내와 현지에 있게 됩니다. 두 딸과 막내 딸은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셈인데 아무래도 저와 있는 막내가 엄마를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울 것 같습니다. 아내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잘 섬기려면 필요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에 쉽지 않은 도전을 하여 이미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 마친 소감을 두려움반 기대반 이었다고 피력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잘 마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 그 영향으로 현장에 많은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시시오. 한국교회가 살아야 열방으로 흩어진 선교사들과 그 현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중보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다시 소식 올리겠습니다. 내내 평안 하십시오.

### 기도제목

1. 안식년을 통해 얻은 쉼과 깨달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2. 아내와 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학업에 열중하도록.

## Need A Nail?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 Galatians 6:14 NIV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 갈 6:14

The youth pastor was concerned that the beaches of Florida, the site of their upcoming evangelism trip, would distract his kids from their purpose, so he made a big wooden cross. Just before they climbed onto the bus he said to them, "Our reason in going here is to lift up Christ, so we're going to take this cross with us everywhere we go."

청년부 목사님은 다가올 전도 여행 장소인 플로리다 해변으로 인해 아이들이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까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버스에 타기 직전에 그는 그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갈 것이다."

Feeling awkward and insecure, the kids dragged the big cross on to the bus. It banged against the seats all the way there. It went with them into restaurants. It stayed with them overnight. It stood in the sand as they shared their faith with thousands of other kids who'd come for spring break. At first it embarrassed them. Then gradually it became a point of identification; a constant reminder of who they belonged to, and why they'd come.

아이들은 어색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커다란 십자가를 버스 안에 끌어들여 넣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버스 속에서 이리저리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식당에 갈 때도 그 십자가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봄 방학을 맞아 온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과 서로 믿음을 교환할 때도 그 십자가는 모래 위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 아이들이 창피해했지만 점차 그 십자가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왔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해주는 확인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The night before they went home, the youth pastor handed each kid two nails and said, "If you're willing to commit your entire life to Christ, I want you to hammer one nail into the cross, and keep the other one with you as a reminder of this commitment."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에 청년부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한 사람 당 두개의 못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께 기꺼히 맡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이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는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가지도록 하여라."

Fifteen years later a successful stockbroker called the youth leader and said, "I still have that nail. Whenever the pressure is on, or I'm tempted to go astray, I just reach into my pocket and feel it, and immediately I'm reminded that the core of my life is - commitment to Christ." Think maybe you need a nail too?

15년 후, 성공한 한 주식 증권업자가 청년부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방황의 유혹이 있을 때,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못을 만져보고 즉시 나의 인생의 중심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당신도 그 못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